

## ‘프로포즈 ‘ 3344 여성 맞춤형도집회

### 요청자 대상자 - 편지/ 일기

‘초청해준 동생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혜경아!

3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참석하라는 너의 조심스런 권유에 내 스케줄에 맞춰 월요일 하루만을 택했던 내가 3일간의 프로포즈를 다 참여 하고 처음으로 입을 떼는구나.

프로포즈 첫 날 나보다 더 많이 울던 너! 네 눈물에 나도 놀랐지만 애써 울음을 참았는데 오늘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어. 나를 초대해놓고 3일 내내 내 표정을 살피는 너에게 무슨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단다. 입을 떼면 눈물이 계속 나올 것 같아 차마 말을 할수가 없었어. 혜경아 너무 고마워.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프로포즈 첫날 하나님께서 언니 집에 오신 것 같아. 언니가 자는 방에 누군가 지켜 보는 것 같아서 자다 깨다를 반복했거든. 그 때마다 지현이가 아파서 내가 약을 먹이고 돌보았단다. 그 덕에 3일동안 지현이도 함께 교회에 갈 수 있었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 아침이 상쾌하기까지 하더구나. 밤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은 것처럼 말아야. 이런 평온함을 내가 느낀 적이 있었던가!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두렵고 외롭게 보낸 시간들. 이런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살아 왔지만 삶은 내 뜻대로 되질 않았고 점점 버겁고 힘겹기만 했어.

기억나니? 불과 10년 전에 너를 얹혀 놓고 자신감에 차 삶의 만용을 부리며 너에게 너스레를 떨던 내 모습이 부끄럽구나.

그 당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네가 사고가 나서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 지경이 되도록 두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러나 넌 하나님께 살려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해 했지. 오늘에야 비로소 알 거 같아. 네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엮기 때문이란 사실을 말야.

이 미련한 언니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고의 현장에서 너만을 살려주신 걸 이제야 깨닫는구나.

내 착한 동생 혜경아!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나를 엄청난 감동의 시간으로 초대해준 너에게 어떻게 고맙다고 표현해야 할지... 사랑한다 내 동생아.

언니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모든걸 상의하면서 평온하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과 사귀어도 될까? 그럴 자격이 과연 내게 있을까?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는 소리를 내가 한 적이 있지. 나는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갖추고 싶단다.

그래서 프로포즈 스쿨에 신청서를 슬쩍내고 왔는데 나의 이런 변화에 혜경이가 계속 언니를 도와주길 바란다. 또 이런 계기로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같아 기쁘단다. 하나님, 저보다 10년이나 어린 내동생을 10년전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은주언니가.

‘언니를 사랑하는 주님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은주 언니...

언니~! 그거 알아? 이상하게도 언니 얼굴을 보면, 언니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느닷없는 눈물을 흘리는 내 모습을 말야.

사실 나도 이런 내 모습을 이해 못 하겠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궁금해 했  
었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니를 향한 어떤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러나 궁금해 했  
어. 하지만 지금은 그 의아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은 처  
음부터 끝까지 언니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언니가 이제까지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일들을  
펼치실 것을 기대해. 프로포즈 광고를 보며 나는 처음부터 이것은 언니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을 직감했어. 언니는 하루만 오겠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언니가 3일내내 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 했었어. 기도대로 언니가 하루 하루 3일 동안 오는 것을 보며 얼마나 감사하든지.  
더불어 지현이가 ‘내일도 또 오자’고 할 때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했어. 언니  
가 지현이 임신했을 때, 앞으로 태어날 조카가 하나님을 어릴 적부터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으로 양육되길 기도했었거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언니 안에 새겨 주셨다는 거야.  
혼자라는 생각에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지 나도 어느 정도 짐작  
해. 이제는 언니가 하나님 한 분으로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축복해. 언니 마음 안에  
꽃핀 사랑이 앞으로 언니를 지켜 줄꺼야.

프로포즈 스쿨 신청한거 정말 잘했어. 꼭 스쿨 끝까지 잘 마치고 승승장구 해야돼!

십년 전에 살아남은 혜경이도 언니 옆에 있으니까 언니 용기를 가지고 화이팅! 언니, 사랑  
해!

-동생 혜경이가.

요청자의 일기 2

이점이 성도(서초C 공동체)

첫째 날 : 새벽기도를 다녀와서 꽃도 꽃고 음식도 장만하면서 참으로 설레고 기쁘다. 공향  
으로 올케를 마중나갔다. 여섯 살 늦둥이 조카와 올케를 태우고 교회로 직행하니 6시가 조  
금 넘은 시각. 2층 74번 테이블이다. 조카를 꿈땅에 맡긴 후 올케를 들여보내고 나도 비전  
홀로 내려갔다.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를 한 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화면으로 전해오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님의 뜨거운 프로포즈가 올케와 꿈땅에 있는 조카에게 전해  
질 것을 믿었다. 하목사님도 말씀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 예수를 소개하셨다.  
끝날 때쯤 부리나케 올라가 조카를 데리고 올케한테 갔다. “어땠어? 영접했니?”라고 물으니  
생각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둘째 날 : 조카가 눈을 뜨자마자 “엄마 교회 언제가?” 하며 자꾸 교회 가자고 보챈다. 주님

게 정말 감사했다. 조카의 보침에 일찍 집을 나섰다. 올케에게 교회 이모 저모를 소개해주고 시간에 맞춰 들어보낸 후 '하나님, 오늘이 참 중요해요. 올케랑은 오늘까지만 참석하기로 했지만 저는 셋째 날까지 다 참석했으면 해요.'라고 기도드렸다. 송채환씨 사회로 세 자매님은 눈물 흘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삶의 고난을 잘 이기고 있다고 고백했다. 자매님들의 이야기는 많은 도전을 주었다. 하 목사님께서도 결혼에는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체질과 문화가 다른 것은 받아들이고 상처는 예수님 안에서 치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주님 올케가 받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동생들 이해하고 받아주게 하옵소서.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하나님의 축복 받는 가정 되게 하소서.'

셋째 날 : 조카가 교회에 가자고 때를 쓰는 바람에 내려가는 일정을 변경하고 오늘도 참석하기로 했다. 오늘은 참 마음이 많이 열려 있음을 느낀다. 교회에 도착하니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왔다. 축하 해주러 오겠단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새삼 느낀다. 하 목사님께서는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다 하시며 행복 비타민을 소개 해주셨다. '주님 우리 올케가 행복 비타민을 날마다 먹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사진도 찍고 참 행복해 하는 올케를 보니 마음이 놓인다. 머지않아 아니 지금 주님의 내민 손을 잡을 것을 확신한다.'

그 다음날 : 올케와 조카를 보내놓고 생명의 삶을 퍼는 데 내가 해 줄 일이 생각났다. 올케를 위해 생명의 삶을 정기구독 신청을 하고 나니 올케에게 전화가 왔다. 잘 도착 했단다. "올케, 와 줘서 고맙고 생명의 삶을 받으면 꼭 읽어 봐.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꼭 나가기를 바란다." 프로포즈와 하목사님, 준비하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릴 뿐이다.

대상자

최미경(이점이 성도의 올케)

감기 뒤라 몸도 피곤했고 일일이 챙겨야 하는 애들을 제쳐놓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  
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애쓰는 형님의 청을 거절하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형님께서 놓치  
기 아까운 특별한 모임이라고 워낙 강조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의 전도모임은  
찬송과 기도, 설교로만 진행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낯선데 3344 프로포즈 모임은  
작은 음악회, 토크쇼, 드라마 등으로 엮여져서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린 것 같  
아요.

집회 3일 동안 순간순간 모인 분들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찡한 감동을  
가지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준비에 애쓰신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 출처 : 온누리신문